

‘마음만 가까이’...추석도 언택트 시대

온라인 차례상·영상통화·별초 대행

지자체 귀성객 고향 방문 자제 요청

광주에 거주하는 김모씨(68)는 추석을 앞두고 아들 부부 걱정이 앞선다.

김씨는 “이번 추석에 혹시 모를 감염 우려에 경기도에 사는 아들에게 내려오지 말라는 전화를 했다”며 “어린 손자가 눈에 밝히지만 가족들 건강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명절 풍속 도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정부도 추석 연휴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성묘나 봉안시설 방문도 가급적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9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추석에는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현재 환자 발생이 감소 추세에 있지만 아직도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경로를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고위험군인 고령층이 있는 가정의 방문을 자제해달라”며 “이번 명절은 거리를 두더라도 마음은 가까이하며 집에서 쉬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같은 정부 지침에 보성군은 추석 명절 기간인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고향방문이 예상되는 향우들에게 서한문을 발송해 이동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서한문에는 산림조합이나 농협 등의 별초 대행 서비스를 안내하는 내용과 온라인 직거래장터 ‘보성물’을 통해 고향에 배

송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명절 고향을 찾지 못하는 향우들을 위해 ‘온라인 합동 차례’를 실시하고, 지역에 계시는 부모님의 안부를 전하기 위해 영상통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고향에서 온 편지’ 영상을 제작해 고향 소식을 유튜브로 알리고 자원봉사단체에서는 소외계층 등을 위해 차례 음식을 나눌 계획이다.

고흥군도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을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중대 고비로 보고, 지난 1일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귀성객 고향방문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명절 기간 이동 자제 의견이 월등히 많이에 대한 비대면 서비스를 고민 중이다.

고향에 가지 않을 명분이 생기자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명절 잔소리를 피하고 싶은 취업준비생과 미혼 남녀, 명절 스트레스를 겪는 며느리와 사위들은 반색하는 반면, 떠난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들은 아쉬움이 크다.

박 모씨(78·여)는 “자녀들이 고향을 못가게 돼 죄송하다고 전화가 왔다”며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어서 오지 않는 게 더 좋다”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선거법 위반’ 황주홍 전 의원 구속

증거 인멸 우려...검찰, 관련 수사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했다가 붙잡힌 황주홍 전 의원(민주평화당)이 9일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반대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전 의원은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

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강진에 있는 황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으나 황 전 의원은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검찰은 부산과 서울 등 황 전 의원의 거처를 추적한 끝에 지난 7일 검거했다.

황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검찰은 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김영민 기자

광산구, 코로나19 ‘휴업지원금’ 지급

‘집합금지 행정조치’ 이행 사업장에 50만원씩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사업장에 ‘휴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휴업지원금은 지난달 27일부터 실시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행정조치’ 이행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50만원씩 지급된다. 노래연습장·PC방·공연장과 체육단련장·체육도장·당구장·무도장 같은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등이 대상이다. 휴업지원금 신청은 10일부터 23일까지 사업장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고, 신청서·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광산구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0~16일 신청한 경우 18일에, 17~23일 접수 사업장은 25일에 각각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윤영봉 기자

광주 일선학교 14일부터 부분 등교

광주시교육청은 원격수업이 이뤄지는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부분 등교로 전환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초·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가 각각 등교한다.

시 교육청은 이날 오후 교육부와 협의 후 이같은 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광주시청

에서 열린 민관공동대책위원회에서 “학부모 민원이란지 여러 어려움과 (지난달 31일 이후) 학교 안에서 코로나19가 감염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해 초·중은 3분의 1 등교, 고교는 3분의 2 등교 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긴급돌봄 외에는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광주·전남 상급병원 전공의들 업무 복귀

전남대·조선대 병원 등...파업 해제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광주기독병원 전공의들이 9일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 8월 21일부터 집단휴진(파업)을 이어온 지 19일 만이다.

9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전날 밤 투표를 통해 과반수가 복귀 찬성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이날 오전 7시부터 업무에 들어갔다. 전남대병원(본원·빛고을·화순) 전공의들은 총 314명 중 307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필수 인력을 제외한 대부분이 파업에 동참해왔다.

전공의 42명이 있는 광주기독병원은 내부 논의 끝에 이날 오전 9시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142명 전원이 사직서를 내고 파업에 참여한 조선대병원 전공의들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모두 병원에 복귀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협약 급여와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의 의료정책 협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김영민 기자

이들의 의사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필수 비인기 전공 과목 의사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협과 정부·여당은 지난 4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보건의로 현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대한전공의협회의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으로 상당수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전남 오전부터 업무에 복귀하고 투쟁 수위를 조정하기로 했으며 새롭게 출범한 대한전공의협회와 전공의 전원 업무 복귀를 결정했다. /김영민 기자

등유 등갑 판매 업체 대표 징역형

법원이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속여 판매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또 같은 업체 대표의 공범도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9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10단독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15일까지 광주 일대에서 이동주유차를 이용해 208차례에 걸쳐 4,400여 만원 상당의 등유 4만3,660ℓ를 차량 연료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민 기자

<h2>상가매매 상무지구</h2> <p>1) 상무지구 6층, 7층(140평) 감정가(시세) - 8억 4억 (급매) (용 2억 있음, 빠, 사무실, 모든업종가능)</p> <p>2) 첨단지구 상가 (오피,주택가능) 10층 감정가 (시세) 2억 → 8,000만 (급매) 올 리모델링 (현 임대중, 보500만, 월44만, 용4천)</p> <p>3) 용봉동 원룸 매매 (용봉IC 3분) [룸15개, 주택1] 리모델링 완료 -매매가 6억9천만원</p> <p>4) 광산구 수완동 다가구 원룸 원룸15개 안집1개-9억5천</p>	<h2>장성토지 분양</h2> <p>광주에서 20분 (도로접)-분양 (주택·주말농장,농막가능,텃밭가능)</p> <p>1) 토지 50평 (농막가능) → 4,000만원 2) 토지(대지) 100평(주택1채) → 8,000만 3) 토지 120평(농막6평포함)-8400만 4) 토지150평(농막6평포함)-1억2000 5) 토지1000평(도로45미터접)---6억(용자3억) (전원주택가능,창고 물류, 사무실, 투자적합)</p> <p>■ 추천물건 ■ 추천물건</p> <p>1) 장성 용강리(토지760평18천5백) 9) 장성 아은리(500평(국도접함)-4억 2) 장성 아은리(500평-4천) 10) 장성 아은리(200평(국도접)-1억4천 3) 장성 아은리(100평-7천) 11) 장성 황룡리(2천평도로접-9억 4) 아은리 시당(182평-5억5천) 12) 장성 황룡리(3천평--12억 5) 장성 아은리(22500평-11억2천) 13) 담양읍 금성(1470평)-8억 6) 장성읍 덕진리(1300평-1억6천) 14) 장성 삼서금산리(300평-8억 7) 남면 월정리(1100평-6억5천) 15) 서구 서창주택가능 270평-6억 8) 장성 아은리(300평도로-2억1천) 16) 장성 북일면(계획3200평-14억</p>	<h2>경매물건</h2> <p>수익형 상가 건물 및 다가구 원룸</p> <p>1)광산구 행암동5층(상가건물) ▶감정 18억-최저9억9천 2)광산구 하남동(2층) ▶감정 8억3천7백 → 최저 4억7천 3)광산구 월계동(2층)61평 ▶감정 4억9천6백 →최저 3억4천7백 4)남구 행암동1층상가120평 ▶감정 5억-최저 1억7천 5)광산구 하남동(상가)3층)111평 ▶감정 7억-최저 4억 6)남구 행암동(1층상가) 18평 ▶감정 5억 → 최저 1억7천8백 7)해남무인텔 2층 ▶감정 12억 -최저 4억4 8)북구 용봉동(고시원4층) ▶감정 13억 → 최저 9억1천 9)대전시티비열영,11층건물 ▶감정 84억-최저 28억</p> <p>토지 / 공장 / 아파트 / 기타</p> <p>1)나주시(토지2346평) ▶감정 5억3-최저 2억3 2)목포시 옥암동 (토지) 208평 ▶감정 11억6천 → 최저 6억5천 3)남구 송하동 (공장) ▶감정 12억7천 → 최저 5억7천 4)광산구 평동 (공장) ▶감정 23억 → 최저 16억 5)나주 토지1486평 대로변30미터 ▶감정 12억-최저 8억5 6)동구 지산동 주택58평 ▶감정 1억6천-최저 7천 7)남구 송하동(공장) ▶감정 127억-57억 (토지1만평,건물2천)</p>	<h2>경매교육 [기초반·특수반]</h2> <p>1 기초 실전반 모집 (무료강의 병행) 1 기초이론 + 실전</p> <p>2 중급 실전반 1 중급이론 + 실전</p> <p>3 고급 특수반 모집</p> <p>4 전문반 모집 · 책상, 컴퓨터 제공 · 주1회 물건분석 스테디</p> <p>이제 경매만이 큰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 엔피엘)</p> <p>※10억짜리 부동산 → 3억에 가능</p> <p>추천 물건-(특수물건)</p> <p>1)충남 홍성(토지1만2천평) 감정100억-최저25억 2)경기양평 주택4채 감정21억-최저7억 3)충북 수안보(4층건물) 감정13억-최저3억3천 4)충남 홍성(아파트부지2천5백평) 감정17억-최저11</p> <p>경매투자 연30%수익가능 · 근저당 설정시 연20% 가능</p>
---	---	--	---

010-6670-9800

062-382-5500